

데스크시각

김재열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많은 점이 많다. 두 사람 모두 불리한 조반 판세를 역전시켜 권좌에 올랐고 돌출발언이 잦다. 노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술한 설화에 휘말렸고 고이즈미 역시 “한국과 중국이 언제가는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비외교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반면 정치 철학은 판이하다. 노대통령은 보수성향이 강한 한국 정치에서 진보로 각인된 반면 고이즈미 총리는 극우 보수 주이다. 무엇보다 공공 부문 개혁에 관해서는 180도 견해를 달리한다.

“가능한 민간에 맡긴다”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에 맡긴다’를 간판 슬로건으로 내세운 고이즈미는 정부산하 특수법인 16곳을 폐지하고 1부 22개 청이던 중앙 부처를 1부 12개 청으로 대폭 줄여, 총 생산 대비 공무원 인건비 비중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26 만명에 달하는 우정공사를 민영화시키고 10년간 7만명을 감원키로 한 것은 고이즈

미 개혁의 압권이다. 반면 우리는 어폐한가. 참여정부 3년간 중앙부처 공무원은 2만7천명, 정부 산하 기관 인력은 8만5천명이나 늘었다. 사상 최초로 연간 공무원 인건비가 20조원을

정부 줄이고 시장 키워라

넘어선다 장차관 수는 148명으로 건국 이래 가장 많다. 작고 강한 정부 구현에는 도통 관심이 없다. ‘혁신만 잘하면 철팔통이면 어떻고 금방통이면 어떤가’라는 식이다. 무엇을 하는지 조차 불분명한 위원회도 부지기수다. 정부기구 축소를 논의할 위원회가 생기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다.

큰 정부라도 할 일을 제대로 하면 명분이 선다. 감투와 기구를 놀렸는데도 지난 해 세계은행이 평가한 정부 경쟁력 지수는 55위에서 66위로 밀렸다. 일꾼을 더 썼

는데 소출은 오히려 줄어들었으니 주인인 국민들의 마음이 편할리 없다.

민간전문가에 문호를 개방한 고위 공무원제가 이달부터 시행되는 등 관료사회에 변화의 조짐은 있다. 그러나 공직사회는 여전히 철팔통이다. 전남지역 상당수

지자체가 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 총 당초 어려운 실정이나 신분에 불안을 느끼는 공무원은 찾아보기 힘들다.

“제 고향 인구는 지난 30년 동안 3분의 1로 줄었으나 공무원 수는 250명에서 600명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오래전 전

망한다니 가히 ‘묻지마 공무원 시대’다.

공무원은 나라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우수한 인력이 공직사회로 몰리는 것을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 그러나 대다수 젊은이들이 안정 만을 선호하는 것 역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고이즈미 개혁 벤치마킹해야

세계에서 일본을 우습게 보는 국가는 한국 뿐이라는 얘기가 있다. 객관적인 일본의 저력을 한국만 주관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고이즈미 정책 가운데 공공부문 개혁만큼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큰 정부 폐하는 로마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인이야기에서 로마가 망한 이유는 세금을 내는 사람보다 걷는 사람이 많아질 정도로 큰 정부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단언한다.

공무원은 서로를 위해 일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유명한 파킨슨 법칙이다. 잠깐 방심하면 팽창하는 것이 관료 조직이다.

우리 앞에는 출산·고령화 사회가 암박해 있다. 인구감소와 노인인구 증가는 세입 감소로 이어져 공공부문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줄이고 시장을 키우는 것이야 말로 저출산 재앙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길이다.

〈사회 2부장〉 ajkim@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차영호



우리나라 공연예술계의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순수예술 분야는 고사 직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의 상황 만은 아닌 것 같다. 어느 재일교포 연극 인의 말을 빌리면 일본의 전통 있는 극 단들조차도 정부의 보조금 없이는 운영이 곤란한 형편이고 중요한 지방극단들은 이미 문을 닫았다고 하니 일본의 공연예술의 현실은 우리보다도 더 심각한 모양이다.

우리도 근본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복지정책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대관극장으로는 공연의 활성화는 물론이요,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질 높은 문화상품을 만들어 내기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여기에도 또 하나의 문제는 전용극장의 상주단체를 선정하는 일 일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는 시립단체를 상주단체로 하는 극장운영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가 있다. 오늘날 전국에 산재해있는 문화 예술회관들은 모두 역대 대통령이나 지방정부의 단체장들이 자신들의 문화체

매일 아침 출근길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줄 때마다 아이는 “엄마, 오늘은 나 데리려 올 거야?”며 꼭 묻는다.

여섯살 아이는 어린이집에 누가 자기를 데리려 올 것인지 항상 궁금해 하고, ‘혹시 엄마가 데리려 오지 않을까?’는 기대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한 번도 아이를 데려가 본 적이 없다. 결코 자기자지 않는 뇌근 시간 때문이 다.

지난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미술 친구가 열렸다. 아이는 미술 친구를 위해 춤 추고 노래를 부르는 연습을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날 회사 일 때문에 참석치

못했다. 아이 때문에 회사를 결근하게 되면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 회사는 부업으로 다니는 아줌마로 비춰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날도 외할머니가 대신 참석했고,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정신 없이 일하다 퇴근한 뒤 서둘러 집에 와 보니 아이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동화책 만 보고 있었다.

겉으로 아무 내색도 하지 않는 아이를 보는 것이 여간 안쓰러웠다.

여성 직장인에 대한 속ぞ은 편견이 없어지는 때, 직장내 보육시설이 제대로 갖춰질 시기는 언제나 될지 모르겠다.

▲문서화·광주시 광산구 송치동

대관극장과 공연예술

각을 바꿔야 한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외국처럼 공공기관이 제대로 된 ‘페포토리시스템’ 극장을 운영하여 인재를 양성하면서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계획공간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연예술의 침체를 살려내는 희망은 상주단체를 둔 전용극장의 운영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다. 지금의 문예회관과 같이 며칠씩 빌려주는 대관극장이 아닌 공연예술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극장의 운영만이 공연예술 분야의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의 현실은 3~40년이 넘게 명맥을 유지해 오면서 그 역사를 자랑하는 예술단체들이 많이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계체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지원신청해서 당첨되면 그때야 사람모아서 공연을 듣는 게 우리의 숨길

적으로 남기기 위해 건립된 산물들이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큰일이 없는 한 평생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본인이 스스로 기량을 엄마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오디션을 통해 새로운 인물로 교체 가능할 때, 그리고 종양이나 세

계적 수준의 공연단체와의 교류가 활발해질 때 비로소 세계시장에 내놓을 명작들을 생산해 낼 수 있으며 더불어 공연예술의 활성화는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세계적 수준의 공연이 융려지고 있는 전용극장을 한곳에 모아놓으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광주의 랜드마크 기능을 지닌 공연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문화수도 광주가 세계에 자랑하게 될 세계적인 문화명소 ‘광주공연예술센터’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광주 연극협회장·2005년1월수상자〉

은펜클럽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 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싣는 코너입니다.

승용차 요일제 확대시행, 취지 살리고 부작용 줄여야

전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민원인을 비롯한 주변 주민들의 불편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한다.

승용차 요일제는 자동차 끝번호를 기준으로 월요일에는 1·6번이, 화요일에는 2·7번, 수요일은 3·8번이 쉬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긴급자동차와 장애인 차량·경승용차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요일제에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들이 경유 업무를 보기 위해 공공기관을 방문

했다가 주변 도로나 주택가 골목에 불법 주정차를 해 인근 주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승용차를 공공 기관에 주차하지 못한다고 인근에 주차하는 일은 요일제 본래 시행 취지에 맞지 않다.

차리리 공공 기관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기업에 대해서도 승용차 요일제를 확대, 시행하면 부작용을 줄이면서 에너지 절약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미숙·광주시 서구 금호동

필요한 사람위해 공중전화 부스 전화부 훠손 안된다

얼마 전 시내에서 공중전화 부스를 이용 번호를 확인할 수 없었더데 114안내를 받기에는 가지고 있는 동전이 부족해 전화번 호부를 뛰어거는데 찾으려면 부분이 찢겨 나고 없었다. 옆 부스도 마찬가지였다.

일부 시민들이 전화번호부를 메모지로 사용하는데 따른 것. 불편 등으로 심하게 낙서를 해 알아보기 힘든 전화번호부도 많았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공중전화 사용은 현저히 줄었고, 공중전화 부스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공중전화기 관리부서는 공중 전화를 통해

얻는 수익보다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 간다고 한다.

‘이용자도 거의 없는데 나 하나쯤 편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전화번호부를 함부로 훠손해서는 안된다.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공 시설물을 쓰는 시민의 기본 자세다.

전화번호부를 제작·관리하는 곳은 또 전화번호부 안에 메모 공간을 남겨 놓는 방법을 고려했으면 한다.

▲백나영·광주시 동구 소태동

광주·전남에도 노인 위한 특수복 보급됐으면

친정 부모님과 시댁 모두 농사를 짓는 집 안이다. 양가 네분 모두 연로하여 자식으로써 사실 늘 건강이 염려되고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을까 항상 노심초사로 전화도 자주 드린다.

얼마전 우연히 뉴스를 듣다가 ‘웨어러블(Wearable) 컴퓨터’라는 침대 의류가 개발 됐고, 차치단체는 이 의류를 허로 사는 노인과 저소득 만성질환자 100여명에게 지급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광주시나 전남도 이런 특수복을 도입해 노인들에게 보급했으면 좋겠다.

▲김대환·광주시 서구 용두동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시설

정부, 침략근성 드러낸 日本 강력 대응해야

일본이 북한 미사일을 빌미로 ‘선제 공격론’까지 거론하며 군사 대국화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다.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비록 외상·방위장 장관 등 일본 각료들이 미리 입을 맞춘 듯 유파라 북한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 폭격론을 제기하고 있다.

대북 선제 공격론은 우리 생존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정부는 일본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청와대 11일 일본 정부 차원에서 제기되는 대북 선제공격론을 도발적 망언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했지만, 가능한 모든 방

법을 동원해 일본의 사과는 물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 일본도 복 미사일 발사 문제를 대화와 외교적 채널로 해결하기보다는 무력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동북아 평화 안정 분위기가 심각하게 훼손되면 일본으로서도 결코 득이 될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감투싸움’에 개원조차 못한 광주시의회

광주시의회가 ‘감투싸움’으로 개원식 까지 갖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시의회는 11일 투표를 통해 제 5대 의장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의장후보로 나선 강박원 의원과 나종천 의원측의 주장이 엇갈려 의장단을 선출하지 못하고 개원식마저 취소했다.

이날 의원들이 보인 행태는 실망을 넘어 한심스러웠다. 반발과 고성이 난 무하마 뮬씨움 일보 직전에 가는 주제를 보였다. 시의원들이 감투싸움으로 경사로운 개원식조차 연기했다니 기가 막힐 뻔이다.

새로 출범하는 광주시의회는 의원 19명 중 민주당 소속이 18명에 달할 만큼 일당체제다. 단체장인 광주시장까지 민주당 소속인 것을 감안하면 시의회에 경제와 균형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자칫 브레이크 없는 열차가 돼 단체장의 독선과 전횡이 난무할 가능성은 없지 않은 것이다.

박광태 시장도 처신에 보다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시장의 ‘선거 개입설’은 사실 여부를 떠나 불미스런 일이다. 모두가 선거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촉구한다.

無等鼓

‘금니디자인’이란 과시형 디자인을 추구하는 중국 업계의 특징을 일컫는 것으로, 실제 품질에 상관없이 최대한 ‘풀나게’ 디자인하는 행태를 ‘금니’에 빗댄 말이다. 90년대 중반까지 중국은 디자인 층면에서 불모지에 가까워 디자인 기업들조차 저가·대량 생산에만 치중했다. 그러나 중국인들도 소득증가, 다년간의 선진 제품 사용 등으로 이제 안

목이 크게 높아졌다.

이에 모토로라, 노키아 등 세계 유명회사들은 ‘중국민을 위한 디자인’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중국에 디자인센터를 설립했다.

특히 이를 기업은 과시욕이 강한 중국인들의 특성을 제품 디자인의 핵심 요소로 설

정하고 있다. 폴크스바겐은 중국에서 판매하는 자동차 내장재로 독일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인공목재를 사용할 정도다.